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제 10호](2014.6)

서울시 용
산구 청파
동 3가
119-2 진
여원홍보팀

부산정사, 6월에 준공 예정

동남부 지역 구제의 도량이 될 부산정사가 드디어 6월 하순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부산정사 전경

부산정사는 부산시 연산구 연제동의 지하철 연산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많은 상가들과 아파트들이 이어져 있는 시내 중심지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삶의 중심지에 부산정사가 완공되는 만큼 부산정사는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사는 이 달 하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정사는 전통적인 산사(山寺)와 달리 도심에 위치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현대적 사찰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한치의 여유도 찾기 힘든 도시민을 위한 휴식의 공간 및 자신의 내면을 관조할 수 있는 힐링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공되는 부산정사에서는 7월 하순경 대열반 부처님을 모시는 법요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 청년 갤러리 연수회 개최

진여원 한국청년회(Korea Youth Gathering)의 연수회가 5월 10일~11일 부산포교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회는 금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될 아시아청년회(Asia Youth Gathering)의 준비를 위한 준비연수회로서 서울에서 13명, 부산에서 7명의 청년들이 각각 참여하였다. AYG는 아시아 각국의 진여원 청년들이 매년 각국을 순회하면서 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유음정사 응현제에 박노경 스지오야 헌화

2014년 5월 9일 영조 102세 생탄일에 오사카의 유음(兪音) 정사에서 개최된 응현제(應現際)에 박노경 스지오야가 한국 스지오야 대표로 참석하여 헌화하였다. 금년은 칸사이(關西)본부 낙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칸사이 지역 및 세계 각국의 스지오야 대표 50명이 대열반존상께 헌화하였다.

교도 13명, 5월 17일 득도수계

5월 17일 오전 9시 총본부 신묘지 오쿠노인(奥院)에서 개최된 득도수계식에 한국에서 13명의 교도가 참석하여 득도수계를 받았다. 대상자들은 일정기간 전행(前行)을 실천하여 심신이 정화된 상태에서 대일대성부동명왕(大日大聖不動明王) 존전에서 계사(戒師)를 맡으신 종정스님으로부터 성계(聖戒)를 받았다.

대일대성부동명왕은 1300년 무렵 불사(佛師) 운케이(運慶)가 새긴 불상(佛像)으로서 개조께서 1935년 진여원으로 권청하여 모신 불상이다. 득도수계를 받은 교도들은 부처님 존전에서 재가불자로서 행해야 할 모든 계율을 준수하겠다는 맹세와 각오를 다졌다.

부산포교소, 오프하우스 개최

부산포교소에서는 지난 5월 31일 오픈하우스가 개최되었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작년도에 행해진 오프하우스와 달리 신도 여부를 불문하고 포교소를 일반대중에 개방하여 진여원과 불교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전달함과 아울러 진여원에 대한 궁금증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부산포교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월 주제를 달리하는 오픈하우스를 행할 예정이다.

완성되고 있는 부산정사 전경시리즈



아름다운 모습의 진여원 부산정사



연산대로 건너편에서 바라본 외관



아늑하게 조경된 부산정사

[체험담] 신앙장애령과 선조들의 이익신앙 정화에 힘쓰고, 집안의 부족한 덕을 보시로 쌓으며정진하는 대전 김분님 교도



저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 모두가 힘들게 살며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한평생을 먹고사는 일에만 매달려가는 것이 인생인가?" 라고 느껴, 바르고 훌륭한 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훌륭한 사람이나 사상, 철학은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인생을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저 서적을 통해 부처님이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는 의식이 생겼고, 국내 사찰에도 다녀봤지만 현현하는 신앙의 힘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1993년 신노엔에 맺어졌고, 일본인이 개창한 종교라는 것에 마음이 걸렸지만, "불교니까"라는 것과 "접심수행"의 힘에 이끌려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류학원 1기생으로 공부하던 어느 날, 교슈사마의 친교를 들은 후 그토록 찾고 있던 세상의 훌륭한 가치가 바로 "교슈사마"였다는 것을 홀연히 깨닫고, 신비한 생각에 저의 주변에 환한 빛이 밝아오는 것 같았고, 머리에는 시원한 청정수가 쏟아지는 듯한 체험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할수록, 교슈사마는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어서 기뻐으나, 기쁨과는 별개로 저의 인생은 "만나는 모든 이가 부동명왕이며 사방 팔방이 벽이로구나" 라고 탄식할 정도로 고달프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돌아가신 선조님 때문에 저는 늘 우울한 기분이었고, 특히 물에서 돌아가신 선조님 인연으로 먹고 소화시키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고, 당뇨인연, 좌절인연, 외에도 커다란 신앙장애령들이 주계, 방계에 포진하고 있어서 저의 앞길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가르침을 열심히 해도 인연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너무 막막해보였지만 별다른 길도 없고 그저 **소, 료, 게, 호님**을 믿고 정진하는 길 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인연들이 나에게만 매달려 있는거지?" 라는 생각 끝에 "어떻게 해야 운명이 바뀌는 거지?"로 바꾸어 생각해봤습니다. 힘든 선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천도를 하고, 신앙장애령과 선조들 이익신앙의 죄업을 참회하며 호마에 기도를 올리고, 집안의 부족한 덕을 보시를 올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사람인도, 교화는 기본적 정진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동안 정진하면서 깨달은 것은, 게이슈 사마께서 올려주시는 호마와 천도, 그리고 덕을 쌓을 수 있게 보시를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마가 없다면 저와 가정은 얼마나 큰 괴로움 속에 불화하며 살아갈지...천도의 공덕을 펼쳐 죽은 자나 산자나 구제를 펼쳐주시는 소, 료, 게, 호님께 감사와 귀함을 절절히 느낍니다. 지금 세상에는 자살이 빈번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매일 접합니다. 저는 이제 진실한 길을 가는 교도로써 "진여"의 길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와 실천으로 상주존상과 게이슈 사마께서 한반도에 옮겨주시는 참마음에 발원문을 올립니다. "상주의 진실한 빛이시여! 여기 눈뜨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둠의 늪에서 헤메이는 가여운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을 구제의 배로 인도해주소서. 상주존의 에너지로 창조된 이 생명 영겁의 성지장엄에 바치오니 삼천리 금수강산. 마을마다. 집집마다. 레이쥬로 귀를 열어 산다리로 눈을 열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진여의 꽃 만발하게 하옵소서. 나무신노이찌노 다이하쯔네향료."

<청파동 칼럼> 자연치유력과 불성(김형태)

악성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나타나고 있는 치료방법 중의 하나가 대체요법 또는 대체의학이다. 이 의학은 정통 의료요법으로 아직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효과가 널리 입증되어 10여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체요법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다.

대체요법은 대개 채식·건강보조식품 섭취, 적당한 운동, 명량한 생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대체요법의 핵심은 사람에게 원래 내재해 있는 ‘자연치유력’을 활용하는데 있다. ‘자연치유력’이란,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도 원위치대로 회복하려는 복원성 때문에 균형을 찾는 것, 가뭄이 심하여 농토가 갈라지고 생물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비가 내려 자연이 다시 활력을 얻는 것, 부패된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 오래 저장되지 않도록 설사를 하여 몸을 보호하는 것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는 복원력 또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본래의 성질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아무리 악화된 건강도 무공해 음식·공기, 밝은 인간관계, 스트레스 원천방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래의 건강상태로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의술이다. 결국 원래부터 있는 자연회복력을 믿고, 그것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서 기존의학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방법으로 건강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치유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부단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치유과정에서 한 치의 방심이 있다면 성공하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시도하지 못하며, 효과도 쉽게 얻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설하셨다. 그런데 그 불성은 대개 잠재되어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힘들고 고뇌에 가득 찬 일상생활에 찌들린 중생의 건전하지 못한 삶이 오랜 시간과 역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누적되어 마침내 DNA에까지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발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잠재되어 있는 불성을 현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치유력을 활용한 건강회복과 같이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진이 요구되는 것이다. 도중에 인내가 부족하다면,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의심한다면, 닦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대체요법이 그 열매를 맺어 원래의 건강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어떤 유혹도 과감히 뿌리치고, 꾸준한 노력 및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 필요한 것처럼, 원래 있는 불성을 발굴하고, 닦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불성을 믿고, 부단한 정진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